

## 경제 성장과 노동 철학

박 세 일(서울대 공법학과)

###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근로자들의 근로 윤리(勤勞倫理)가 크게 해이해졌고,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企業家精神)도 많이 이완되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법조인·학자·의사·예술인 등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 윤리도 대단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모두가 일을 하긴 하되 열의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옛날의 부지런함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우리 경제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내지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근로 정신의 부족 내지 직업 윤리의 이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선진화(先進化)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근로 윤리가 억망인 사회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과 기술 혁신도 그리고 숙련과 기능의 착실한 축적도 기대할 수 없으며, 기업가 정신이 없는 사회에서는 혁신적 경영 개혁도 원만한 노사 관계의 정립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근로 정신과 직업 윤리의 이완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기업가 정신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특히 많아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근로 정신이 해이하게 된 주 원인을 한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하였던 부동산 투기붐과 과소비(過消費)에서 찾기도 한다. 한마디로 불로소득(不勞所得)과 과소비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만 근면성과 성실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경제 속에서 피땀흘려 일해도 '내집 갖기'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반면, 졸부(猝富)들과 불로소득자들의 과소비 행렬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 속에서 정직과 근면의 근로 윤리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상당 부분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만으로 모든 설명이 끝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 정신과 근로 윤리의 부족 문제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 문제도 어떤 사람들 은 그 원인을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관(官) 주도의 금융 관행과 정부의 각종 인허가 제도를 둘러싼 비경쟁적(非競爭的) 기업 환경, 그리고 세제(稅制)·세정(稅政)의 비합리와 비리 등에서 연유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성패가 기술 혁신이나 신상품 개발 등에 있지 않고 정부로부터의 특혜의 수수에 보다 크게 좌우된다면, 그러한 기업 환경 속에서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은 성장할 수 없고 오직 가능한 것은 천민적(賤民的) 장사꾼 정신일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시장 개척과 경영 혁신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후생 증대(厚生增大)에 보다 많이 기여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경제 질서와 경영 풍토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창의(創意)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특혜 금융과 조세 감면을 받는 편이, 또한 각종 인허가(認許可) 제도를 통하여 독점권을 배타적으로 인정받아 사업하는 편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쪽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러한 경제 질서와 경영 환경 속에서는 결코 혁신적인 기업가상은 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오직 정상배적 기업가상만이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번 옳은 이야기이다. 상당 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나라의 근로 윤리·기업가 정신의 부족 문제의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의 오랜 역사와 우리의 정신문화적 전통 속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노동 천시의 노동 철학’과 ‘노동 기피의 노동 철학’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본래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노동이나 직업에는 ‘생활 유지’라는 경제적 측면과, ‘삶의 보람’이라는 의미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역사를 보면 노동이나 직업의 ‘경제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왔고, 노동이나 직업의 ‘의미적 측면’은 항상 무시되거나 방기되어 왔다. 이는 결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와 과소비가 있기 오래전부터도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의 의미적 측면은 항상 사회적 관심 밖이었다. 기업 경영의 사회적 의미보다 기업을 통한 일가(一家)의 돈벌이가 보다 큰 관심이었다. 노동을 통한 물질적 풍요의 달성, 즉 ‘잘 살아보자’가 목적이었지, 노동을 통한 사회적 봉사와 정신적 만족은 큰 관심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노동의 의미적 측면’을 연구하고, 이론화하고, 그 중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려 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 나라의 교육자도 정치가도 기업인도 종교가도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 것 같지 않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과 직업은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삶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노동의 의미적·가치적 측면은 없어지고, 경제적·생활적 측면만이 남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 천시의 노동 철학’·‘노동 기피의 노동 철학’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경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근면·정직의 근로 정신과 혁신·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물론 누구나 배가 고풀데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때, 그러한 때에는 생계의 유지만을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경제 개발의 초기, 공업화의 초기가 그러한 시대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여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생계 유지만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근면과 성실이, 더 이상의 창의와 혁신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 이러 한 때에도 그 사회에서 근면과 성실의 근로 윤리가 유지되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선 그 사회에 올바른 노동 철

학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 기피 내지 노동 천시의 철학이 ‘노동 존중의 철학’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의 경제적 측면보다도 노동의 의미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이것이 그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치 체계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어느 사회건 경제 성장, 환언하면 물질적 풍요의 진전과 더불어 근로 윤리와 기업가 정신이 해이하게 되는 경향이 불가피하게 등장하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적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본고(本稿)의 문제 의식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 의식 아래 제Ⅱ장에서는 노동 철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이론적 문제를 간단히 다루고, 제Ⅲ장에서는 노동 철학의 국제 비교, 특히 유럽과 일본의 경우 어떠한 내용의 노동 철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참고로 결론인 제Ⅳ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노동 철학을 세우기 위해, 환언하면 ‘노동 존중의 노동 철학’을 세우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 II. 노동 철학의 기초

### 1. 노동의 두 가지 측면

본래 노동 내지 직업은 세 가지 측면 내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개성의 발휘, 즉 자기 능력의 발휘로서의 노동, 자아 실현으로서의 노동이다. 둘째는 연대(連帶)의 실현, 즉 사회적 역할의 수행으로서의 노동, 사회적 분업에의 참여로서의 노동이다. 셋째는 생계의 유지, 즉 생활을 위한 소득 창출의 수단으로서의 노동이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노동 내지 직업의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런데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개성의 발휘 내지 자아 실현이란 과연 남과

의 관계를 떠나서 홀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의 발휘 내지 자아 실현의 의미는 결국 남과의 관계 속에서,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성의 발휘 내지 자아 실현이란 요소는 곧 노동 내지 직업의 두번째 요소인 연대의 실현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게 된다. 즉 사회적 분업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실현 속에서만 개성의 발휘나 자아 실현이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환연하면 개성의 발휘나 자아 실현도 단순한 개인적 사건 내지 개인적 사실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분담과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사회적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연대의 실현, 즉 노동을 통한 사회적 분업에의 참여와 사회적 역할의 분담이 노동과 직업 개념의 중심적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바로 노동의 의미적·가치적 측면이 된다. 보람으로서의 노동, 목적으로서의 노동의 주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반면에 노동의 세번째 요소인 생활 유지 수단으로서의 노동은 노동의 경제적·생활적 측면이 된다. 이상에서처럼 노동은 본래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의미적·가치적 측면과 경제적·생활적 측면이 그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이 노동의 의미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상호 분리·상호 모순의 관계로 발전하는 시대와 사회가 있고, 반대로 양자가 상호 침투하고 상호 융합하는 시대와 사회가 있다. 예컨대 전자의 시대에는 일반 생산노동은 순전히 생계를 위한 노동, 즉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되어버리고, 여가 노동이나 종교적 예식을 위한 노동만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노동, 목적으로서의 노동이 된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일반 생산노동을 가능한 한 기피하려 하고, 여가 노동이나 종교 노동만을 선호한다. 여가 내지 휴식이 삶의 목적이 되고, 노동은 여가 내지 휴식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종교 의식이 삶의 목적이 되고, 생산 노동은 그 수단이 된다. 그렇게 되면 노동 기피 내지 노동 천시의 철학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노동 소외가 보편적 사회 현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노동의 의미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상호 침투하고 상호 융합하

는 사회 내지 시대에는 사람들이 일반적 생산 노동 속에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찾게 되고, 여가 노동은 오히려 생산 노동을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생산 노동과 종교 노동 사이에 엄격한 질적 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생산 노동이 그대로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결국 모든 형태의 노동이 의미·가치·보람을 가지며 동시에 생산적이게 된다. 모든 노동이 귀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연 노동 존중의 철학, 노동 중시의 사회적 기풍이 진작되고, 더 이상의 노동 소외 현상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어느 때 노동의 의미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상호 반발하고 상호 모순하며, 어느 때 양자는 상호 침투하고 상호 융합하는가?

## 2. 분업 질서와 노동 철학

이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선 인간의 대부분의 노동은 사회적 분업 질서(分業秩序)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비로소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래 한 사회의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해 내는 노동 생산물의 크기의 연년(年年)의 증가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이미 일찍이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지적한 대로 그 사회의 분업 발전의 정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 사회의 분업 발전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의 생산성은 높고, 그만큼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이룩한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고도 산업사회는实은 고도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분업 질서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는 사회이다. 경제 성장과 산업화 및 물질적 풍요의 달성이란 실은 분업의 세분화·고도화·복잡화· 전문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위험이 있다. 즉 분업의 세분화와 고도화는 결국 개인 노동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의미하는데, 이 개인 노동의 세분화와 고도의 전문화가 곧 개인 노동의 무의미화를 결과할 수 있다는 위험이다. 고도로 복잡한 분업 질서가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간은 고도로 복잡한 분업 질서 속에서 개인의 노동이 세분화되고 분할되며 특정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버려, 그 한정되고 세분화된 내용만을 반복해야 하는 경향이 생긴다. 환언하면 전면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을 사실상 포기하는 구속적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노동은 점점 의미를 잃고 대상화되고 노동 주체인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어 나간다. 그리하여 사회적 분업의 발전에 따라 노동의 세분화 나아가 노동의 무의미화의 위험도 동시에 증가한다. 그리고 이 노동의 무의미화 현상은 종국적으로 노동 기피의 철학 내지 노동 천시의 철학으로 연결될 위험을 가진다.

그렇다면 분업의 발전, 즉 노동의 세분화와 고도의 전문화는 불가피 노동의 무미미화와 노동 소외를 초래하는 것일까? 분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은 본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 능력 중 일부만을 특정한 노동 분야에 집중하고 특화해야 한다. 따라서 그만큼 분업 노동에는 구속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업 노동이 반드시 노동의 무의미화, 노동의 소외를 결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분업 노동이 노동의 무의미화를 결과하는가 결과하지 않는가, 분업 노동이 고통인가 아니면 즐거움이고 보람인가 하는 문제는 분업 노동이 일어나고 있는 분업 질서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환언하면 분업 질서의 내용과 의미를 분업 노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노동이 단순히 생활 유지의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환언하면 노동의 의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의 수행 내지는 사회적 직능의 분담, 그리고 그를 통한 개성의 발휘 내지는 자아 실현이라는 측면이 부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나 사회적 직능의 분담이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내지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사회의 분업 질서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동의할 때에 한한다. 소위 공동 가치 내지 공동 목표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개별 분업 노동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만일 그 사회나 그 사회의 분업 질서가 지향하는 가치나 목표에 대하여 개

별 분업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노동의 무의미화가 일어난다. 분업 체계를 통해 이룩해야 할 공동 목표가 상실될 때에는 분업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개별 목표만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곧 개인 내부의 욕망 구조에의 안이한 도피를 결과하기 쉽다. 예컨대 소비 노동과 여가 노동이 삶의 목표가 되고, 생산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 생산적 노동에 종사할 때에는 삶의 보람과 자기 존재의 의의를 느끼지 못하며, 오직 놀고 먹고 소비할 때 그러한 것들을 느낀다. 소위 노동의 의미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상호 분렬·상호 모순의 관계로 발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동 소외의 심화, 노동의 무의미화 노동 기피 내지 노동 천시 철학의 팽배이다.

반면에 당해 분업 질서가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를 개별 분업 노동자들이 공동 목표·공동 가치로 공유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업 노동에 대하여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소위 노동의 의미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노동의 세분화나 분업의 고도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업 체계를 지지하고 있는 가치·신화(神話)·목표 등에 대하여 그 분업 구성원들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문제이다. 만일 분업 구성원들이 분업 질서의 공동 목표를 인지하고 공동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 곧 분업은 하나의 사회적 연대의 시스템이 된다. 개체와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 시스템이 된다. 이제 개인은 분업 노동을 통하여 전체와 만나고,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누어 가지며, 전체의 목표 실현에 참여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의 의미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상호 침투하고 상호 융합하여 생산 노동이 그대로 목표지향적이고 가치실현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노동 소외나 노동 천시의 철학은 자연 사라지고, 오로지 노동 존중의 노동 철학만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 문제도实은 그 원인의 일단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실은 우리 나라에서 노사 관계 악화의 상당 부분은 노동 소외의 심화와 노동의 무의미화 및 노동 천시 철학의 팽배를 막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특히 대량 생산 체제하의 관리 기법인 테

일러 시스템(Taylor System)에 의존하여 우리나라 공장의 대부분은 국제 경쟁력의 강화와 생산성의 증가를 공정의 극단적 세분화, 기능공들의 단순 반복 작업에의 배치, 그들에 대한 근거리(近距離) 감독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이룩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생산성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 정도 성공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장 관리 기법은 근본적으로 노동소외적이 되기 쉽다. 특히 경영자측에서 배치전환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에게 기업 경영의 내용을 설명하고, 경영과 기술 변화의 정보를 끈임없이 공급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전체 분업 구조의 모습을 이해시키려 각별히 노력하지 않는 한 노동의 무의미화를 막기 어렵다. 개별 공장의 분업 구조이건 아니면 전체 사회의 분업 구조이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업 구조의 전체상을 올바로 파악해야 자신의 개별 노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나 사회 전체와 자신의 개별 노동과의 관계적 의미를 바르게 파악해야 비로소 자기 존재의 의미와 자기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이 점에 대한 고려가 특히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노동 소외의 심화, 노동의 무의미화, 노동 기피 내지 노동 천시의 사회 풍토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건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키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외국의 경험과 역사는 어떠하였는가?

### III. 노동 철학의 국제 비교

오늘날 선진공업국이 된 유럽의 여러 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노동 존중의 철학, 노동 자체를 자기 목적으로 보는 노동관을 세우기 위해 오래전부터 각별한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노동을 단순한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가 아니라 노동 자체를 가치창조적이고 가치실현적인 것으로 관념하는 노동관, 환언하면 노동의 경제적 측면과 노동의 의미적 측면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상호 분렬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노동관은 어느 사회건 결코 저절로 형성되고 발전해 온 것은 아니다. ‘노동=목적’인 노동관은 인간에게 결코 생득적(生得的)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 사회의 선각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야 하고, 오랜 사회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그 사회에서 그러한 철학이 서서히 형성·정착·발전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선진공업국이 된 나라들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노동을 자기 목적으로 보는 노동관을 형성 발전시켜 왔는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한다.

### 1. 유럽의 노동 철학

본래 중세 가톨릭의 노동관은 노동을 인간의 원죄(原罪) 대한 보상으로 보는 소극적 노동관이다. 따라서 노동은 신앙 생활이나 수양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신앙 생활을 위한 단순한 자연적 기초로서 생산 노동을 보았고, 그 자체는 도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세속적 노동도 신(神)의 의지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기본적으로 노동을 피조물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노동 자체에 어떤 적극적 의미를 부과할 수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주지하듯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에 와서였다. 루터는 세속적 노동과 직업에 적극적으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는 노동이나 직업을 죄에 대한 갚음 내지 벌(罰)로는 보지 않았으며, 신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내지 소명(召命)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독일어에 직업을 의미하는 ‘Beruf’라는 단어 속에 영어의 ‘calling’이라는 소명을 의미하는 뜻이 내포되게 된 것도 실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여하튼 그는 중세 전래의 수도원 생활이 이제 신(神) 앞에 의(義)로 되기 위해서는 아주 무가치할 뿐 아니라 실은 세속적 의무에서 도피하는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세속적 직업 노동이야

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루터의 이러한 주장에는 모든 직업은 신의 의지이며, 모든 사회적 분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질서라는 그 나름의 관찰이 전제되어 있었다. 사회적 분업의 기능에 대하여 그가 아담 스미스처럼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았다는 증거는 없으나, 적어도 사회적 분업을 통하여 우리의 직업 노동이 타인에게 유익함을 결과한다는 관찰은 대단히 흥미 있는 관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직업관 내지 노동관과 관련해 볼 때, 그의 이러한 관찰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관찰 위에서 신의 뜻에 사는 길은 금욕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데에 있지 않고 각자의 생활상의 위치에서 세속 내 의무를 다하는 것, 환언하면 ‘직업=천직(天職)’에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그리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직업 노동을 통하여 실천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모든 정당한 직업은 신 앞에서 아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세속적 직업 생활 내지는 세속적 노동에 대하여 이처럼 종교적·도덕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 종교개혁의 업적, 특히 그 가운데서도 루터의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이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루터의 노동관 내지 직업관에는 하나의 한계 내지 이중성이 있었다. 즉 그가 직업 노동을 신에 의해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라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세속 내적 의무를 중요시했던 점은 진보적 사고로 물론 높이 평가되어야 하나, 그가 자신의 직업관을 체제 순응의 논리로, 환언하면 ‘주어진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의 논리’로 발전시킨 것은 분명 그의 사상의 한계 내지 보수성을 보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그의 보수적 내지 전통주의적 직업관이 당시 독일의 농민 운동에 대한 그의 부정적 평가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의 직업노동관에 남아있던 또 하나의 보수적 내지는 전통주의적 요소는 합리적 영리 활동을 단순한 ‘돈벌이’로 보고 장사꾼들의 이의 추구와 동일시하여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관점

은 기본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며, 화폐경제적 노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중세지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정신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루터의 직업노동관에는 아직 이중적인 성격이 많이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중성이 완전히 극복되고 진정한 의미의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직업관 내지 노동관이 성립되는 것은 다음에 살펴볼 칼빈(John Calvin, 1509~1564)에 와서의 일이 된다.

주지하듯이 16~17세기 당시의 유럽의 선진국이었던 영국·네덜란드·프랑스에서 지배적인 사상의 하나, 정치적·사상적 변화를 주도했던 사상의 하나가 바로 칼빈주의이다. 그리고 당시는 물론 일반적으로 오늘날에까지 칼빈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교의로는 예정설(豫定說)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칼빈주의의 노동관·직업관을 보기 위해서는 예정설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예정설의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를 직접 인용하기로 한다.

“제9장(자유 의지에 대하여); 제3항: 인간은 죄에 타락함으로써 구원을 가져오는, 정신적 선(善)을 구하는 모든 의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 인간은 죄 속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의 준비조차도 불가능하다.

제3장(신(神)의 영원한 결단에 관하여); 제3항: 신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결단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예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예정하였다. 제5항: 이 예정은…결코 신앙이나 선행(善行) 혹은 그 어느 하나의 지속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으며]… 피조물의 그 어느 것도 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신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이고 …신의 은혜가 찬미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재인용)

이상의 간단한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정설에 의하면 신(神)만이 자유이고 인간은 철저히 부자유이며, 인간은 신의 권위와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신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도 좋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인간은 신의 의자를 이해할 수도, 그 소재를 짐작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일부만이 구제되고 나머지는 저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공덕을 쌓거나 선행을 하면 이러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확정된 신의 절대적이고 자유스런 의사 결정을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적 작용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신의 결단은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신이 은혜를 준 자는 그 은혜를 상실할 수 없고, 신이 은혜를 거절한 자도 도저히 그 은혜를 다시 얻을 수 없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인 교의(教義)가 당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신적·심리적 영향을 주었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내면적 고독감·불안감·긴장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내면적 고독감과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자신이 신에 의해 선택되었는가 선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 절실한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길을 그들은 어디서 찾았을까? 이 실존적이고 근원적인 종교적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내면적 긴장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그들은 어디서 찾았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들은 엄격하고 금욕적인 직업 노동에서 그 해결의 방법을 찾았다.

우선 그들은 자신들이 과연 선택되었는가 선택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확신의 결여 그 자체를 곧 신앙 부족의 결과이고 은혜 작용(恩惠作用)의 결여라고 보았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확신해야 하고 모든 의혹을 악마의 유혹으로 보아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유혹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와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강철 같은 의지로 구원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력한 자의식(自意識)을 습득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끊임없는 직업 노동의 엄격성과 금욕성이 요구되었다. 엄격한 직업 노동을 통해 종교적 의혹과 불안은 극복되고 자신들이 신의 은총하에 있다는 확실성이 보증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처럼 세속적 직업 노동이 종교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훌

륭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칼빈주의 교의의 배경이 있었다. 즉 인류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중 특히 선택된 기독자들은 이 세상에 신의 영광을 더욱 증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신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회적 업적(業積)이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 사회가 신의 율법에 기초하여 그 목적에 합치하도록 구성되고 편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신은 이 땅의 사회 질서가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업적을 이루는 가장 주된 방법이 바로 직업 노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사회의 합리화, 인류의 효용 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 자체가 곧 신의 영광을 성취하고 신의 기대에 답하는 것이 된다. 루터에서는 직업 노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으나, 칼빈에 와서는 신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는 셈이다.

직업과 노동이 신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구원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의 직업관·노동관에는 금욕적이고 엄정주의적인 요소가 많게 된다. 직업 노동은 단순한 욕구 충족의 수단, 생계 유지의 수단이 아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행위였다. 따라서 이는 금욕적이고 자기 억제적이었다. 직업 노동은 외부적으로는 신의 영광의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질서의 합리화를 위한 신의 도구로서의 행위였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와의 투쟁이었다.

특히 자신의 금욕적이고 헌신적인 직업 노동이 곧 그대로 신의 의지일 뿐 아니라 신의 작용임을 스스로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당시 종교 의식의 최고 경지인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느낌은 그의 직업 노동의 사회적 성과가 성공적일수록 더욱 가중되었다. 금욕적 직업 노동을 통한 사회적 성공, 즉 개인적 부(富)의 축척과 사회적 질서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러한 것들은 자신이 이미 신의 은총하에 있다는 객관적 증거로 작용하였다. 이상에서처럼 직업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생활을 위한 방편이 아니었다 해도 삶의 목적 그 자체였으며, 구원을

향한 신앙 생활의 시작이고 끝이었다.

이러한 칼빈주의적인 금욕적·종교적 노동관과 직업관이 유럽의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의 정신적·윤리적 기초가 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신적·윤리적 전통은 오늘날에도 상당 부분 그들 사회의 저변에 문화적 자산으로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도 이 문화적 전통이 그들 ‘사회의 건강성’을 지탱해 주고 있고, 그들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천민화를 막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음으로 동양에서 오늘날 유일하게 선진공업국이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어떠한 계기와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오늘날과 같은 노동 존중의 철학,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노동관, 보람과 가치로서의 직업관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자.

## 2. 일본의 노동 철학

이미 유럽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한 시대 한 나라의 노동 철학 내지 직업 윤리를 결정하는 데는 당시의 영향력있는 종교나 사상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그 종교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世界觀) 내지 존재론(存在論)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일본의 경우 오늘날 그들의 노동 철학 내지 직업 윤리의 근저에는 실은 불교적 세계관 내지 존재론이 있다고 본다. 이 불교적 세계관 내지 존재론을 노동의 문제, 직업의 문제와 연결 시켜 일본적 노동 철학과 직업 윤리를 정립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스즈끼(鈴木正三, 1579~1655)이다. 본고에서는 스즈끼의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적 노동 철학의 원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스즈끼는 루터나 칼빈보다 우리 사회에 덜 알려져 있어 스즈끼 자신에 대한 약간의 소개를 덧붙이기로 한다. 스즈끼는 16세기 중엽 도꾸가와 가신(家臣)에 속하는 한 무사의 장자로서 태어났다. 스즈끼는 22세 때 도꾸가와 이에야스의 가신으로서 전투에 참가하고 36세 때에는 크게 무공을 날려 200 석을 하사받은 일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무사로 근무하면서도 임제종이나 조동종의 큰 스님들을 방문하여 불도 수행에도 열심이

었다. 42세에 출가하여 은진사를 짓고 그곳에 머물렀다. 그 후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여러 책을 썼으며, 그 중에도 특히 「만민덕용(萬民德用)」과 같은 뛰어난 저술이 있다. 그러나 그는 전통적 의미의 승려 생활에 치중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에게도 제자가 40~50인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나,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사·농민·상인 등과 광범위하게 교류하며 그들과 문답하고, 때로는 그들의 모임에 나가 강연하는 식으로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전파했다고 한다. 그의 행적을 보고 후세의 학자들은 그가 불교 민중화의 의도가 있었다고도 한다. 또한 뒤에 재론하겠으나, 그가 출가(出家)를 권하지 않고 재가(在家)에서의 봉공(奉公)이야말로 수행의 길이라고 한 주장을 보고 후세 학자들은 그에게는 유럽의 프로테스탄트에 필적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었다고도 평가하기도 한다. 그는 77세에 입적하였다.

스즈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어 그 점에서는 당시의 다른 불교 사상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사상가의 경우에는 찾을 수 없는 그의 사상적 특색은 불교와 직업 노동과의 관계에 대한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의 사상 체계는 크게 보아 세 분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보은(報恩) 사상이고, 둘째는 재가 성불(在家成佛) 사상이고, 셋째는 ‘노동 즉 불행(佛行)’ 사상이다.

보은 사상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세계관 내지 존재론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는 연기론(緣起論)에 기초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존재는 상주하지 않고 실체없이 부단히 변화하며 단지 상의 상관(相依相關)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상의 상관의 관계를 연(緣)의 관계 혹은 연기의 관계라 한다. 이 연기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는 시간적으로 과거·현재·미래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자기 자신에만 의존하여 존재하지 않고 일체의 존재와 연결되어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흥미있는 것은 이 대승 불교의 연기 사상이 일본에 들어와서는 은(恩)과 보은(報恩) 사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을 뿐 아니라 제 은(諸恩)의 덕택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스즈끼도

천지(天地)의 은(恩), 스승의 은, 국왕의 은, 부모의 은, 그리고 중생의 은의 중함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중생의 은을 설명할 때 그는 “농인(農人)의 은, 제 직인(諸職人)의 은, 의류 방직(衣類紡織)의 은, 상인의 은”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여러 은혜 속에서 성립하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보은이 하나의 적극적 규범으로 등장하고, 이 보은 사상이 스즈끼의 노동 철학, 나아가 일본의 직업 윤리에 하나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 한마디로 직업 노동을 하나의 ‘은혜를 갚는 과정’ 즉 보은의 과정으로 본다.

다음은 스즈끼의 재가 성불(在家成佛) 사상이다. 스즈끼의 불교 사상에는 현실도피적이고 정적이며 소극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 그는 사회 속에서 사회를 위해 일할 것을 권하고 출가보다는 재가(在家)에서 가직(家職)에 충실하고 그를 통해 봉공하는 것이 그대로 수행이요 불도라고 주장했다. 실은 이러한 그의 ‘재가 성불’ 사상은 그의 세법(世法)과 불법(佛法)을 둘로 보지 않는 불교관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의 일반적 불교 사상가들이 불도 수행의 유품을 출가로 보고 세속을 떠나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음에 반하여, 스즈끼는 ‘세법 즉 불법’을 주장하며 재가에서의 수행을, 특히 각자 맡은 바 직업 노동에의 정진을 통한 자기와의 싸움,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번뇌와 삼독심(三毒心: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과의 싸움을 주장하였다. 번뇌와 삼독심만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면, 재가의 행(行)이 그대로 불도 수행(佛道修行)이라는 주장이다. 스즈끼가 승려들의 형식적 출가를 비판하고 오히려 재가 성불을 주장한 것은 앞에서 루터가 수도원의 생활을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엄격히 비판하고 오히려 세속적 직업 노동이야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라고 주장한 것과 기본적으로 그 사상적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스즈끼의 ‘노동 즉 불행(佛行)’ 사상을 보도록 하자. 실은 여기가 스즈끼의 노동 철학의 독자성과 창의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가 일본적 직업 윤리의 형성에 스즈끼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스즈끼의 노동 철학 내지 직업 철학의 중심 사상이 되는 이 ‘노동 즉 불행’의 사상의 근저에는 실은 대승 불교의 화엄사상이 놓여 있다. 스즈

끼의 노동 철학은 기본적으로 대승 불교의 화엄사상에서 나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면 화엄사상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주의 일체 존재를 그대로 부처의 현현(顯現)으로, 부처의 분신(分身)으로 보는 사상이다. 우주의 일체 존재가 부처의 나타남이고 부처의 일부라면, 일체의 직업 노동도 부처의 나타남이 아닌 것이 없고, 부처의 행(行)이 아닌 것이 없다. 따라서 모든 직업은 신성하고 평등하며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불행(佛行)이 된다.

스즈끼는 그의 「만민 덕용(萬民德用)」에서 다음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본각 진여(本覺眞如)의 일불(一佛)은 백억 분신(百億分身)이 되어 세계를 이롭게 하고 있다. … 직인(職人)이 없으면 세계의 용(用)이 없고, 무사(武士)가 없으면 세치(世治)가 없으며, 농인(農人)이 없으면 세계의 식물(食物)이 없고, 상인(商人)이 없으면 세계의 자유(自由)가 없다. … 그밖에도 여러가지 사업이 모두 세상을 위한 것이 된다. … 일체 사업이 모두 불행(佛行)이 된다.” (시마다(島田)의 「일본인의 직업 윤리」에서 재인용)

결국 직업 노동이란 부처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 위로는 참된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중생=부처’이기 때문에 직업 노동이란 중생이 자기 완성·자기 구원에 이르는 수행의 과정, 참된 진리를 구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과정, 한마디로 성불(成佛)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기본 사상 위에서 스즈끼는 「만민덕용」에서 무사·농인·직인·상인의 각각의 직업 노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德目)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소개는 약하겠으나, 예컨대 무사의 경우에는 만민(萬民)의 질서를 지킬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사리(事理)에 밝고, 인의(仁義)를 행하고, 부동(不動)의 마음과 자비 정직(慈悲正直)의 마음 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농인(農人)의 경우와 직인(職人)의 경우에는 깊고 건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든다면 농사짓는 일과 물건만드는 일이 그대로 보살의 행(行)이 되고 그대로 성불(成佛)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농사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상인의 경우에도 당시의 종교 사상가들이 대부분 영리 활동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즈끼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상업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보고, 사람들을 즐겁고 이롭게 한다는 생각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익을 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는 상인의 덕목으로 정직(正直)을 가장 우선시한다.

지금까지 오늘날 일본의 노동 철학·직업 윤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스즈끼의 불교적 직업노동관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상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듯이 일본의 경우에도 직업 노동은 단순한 생계 유지의 수단이 아니었다. 직업 노동 그 자체가 깨달음과 자기 완성을 향한 길이었고, 가장 고귀한 신앙적 삶의 모습이었다. 직업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의미였고 가치였다. 가장 숭고한 종교 행위 그 자체였다.

#### IV. 결론 : 노동 존중의 철학을 세우기 위하여

이상에서 유럽과 일본의 경우 노동 존중의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들의 경우에 항상 노동의 의미는 당시 지배적인 사회 사상이나 지배적인 종교가 제시하는 궁극적 삶의 목표 내지 삶의 가치와 일치하였다. 아니 이들 궁극의 목표 내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노동의 의미가 강했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노동, 신의 영광을 찬미하고 이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노력으로서의 노동이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깨달음과 자기 완성을 향한 ‘구도의 길’로서의 노동이었다. 한마디로 삶의 ‘목표로서의 노동’이었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문화적 전통이 오늘날에도 그들의 노동 철학과 직업 윤리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实은 그러한 정신적 자본(mental capital)이 오늘날 그들을 선진공업국으로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유럽인이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동 존중의 정신적 자본과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 필자의 연구 부족이기를 바라나 별로 없는 것 같다. 적어도 우리 역사의 한 시대를 풍미한 사상, 한 시대를 지배했던 종교가 노동 존중의 노동 철학을 이야기하고 노동을 통한 구원이나 노동을 통한 자기 완성을 주장했던 예는 없었던 것 같다. 몇몇 학자나 일부 종교가들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예는 있기는 하나, 이러한 주장이 당시의 주류 사상이 되고 당시의 시대 정신이 되어 그 후 대에도 하나의 문화적 유산이나 정신적 자본으로 작용하였다든가 하는 예는 없었던 것 같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본래부터 노동 존중의 철학적 전통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의 역사를 오래 지배해 온 이상적 삶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지배 엘리트들의 철학으로서의 ‘입신 출세(立身出世)’,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억눌린 민중의 종교적 감상으로서의 ‘신선(神仙)과 같은 삶’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노동을 존중하지는 않았다. 노동의 자기 목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니 오히려 노동 기피 내지 노동천시적인 면이 강했다고 보인다. 예컨대 ‘입신출세론’에는 노동 그 중에서도 특히 땀흘리는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측면이 강하였고, ‘신선론’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중시하는 측면이, 환언하면 노동기피적 측면이 강하였다. 우리는 노동하는 신선을 보지 못했고, 우리는 땀흘리며 육체 노동을 하는 선비나 관료들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우리들이 이상으로 생각해 오던 삶의 모습들이었다. 그 어디에도 노동 존중 내지 노동 중시의 삶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경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찾고 있다. 이제 저가격·저품질·저생산성·저임금으로 경쟁하던 시대는 분명히 끝났다. 이제는 고가격·고품질·고생산성·고임금으로 국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다. 그런데 고품질·고생산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물론 상당 부분 선진 기계와 선진 기술에서 온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선진 기계는 돈만 있으면 쉽게 사올 수 있고, 선진 기술도 어느 정도의 학습 기간만 지나면 쉽게 모방해 올 수 있다. 그런데 선진 기계와

선진 기술만 가지고 국제 경쟁에 나선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을 대부분의 나라들도 쉽게 선진 기계와 선진 기술의 보유국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 기술과 선진 기계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새로운 정신적 자본’이 추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 ‘새로운 정신적 자본’을 필자는 ‘노동 존중의 철학’·‘자기 목적으로서의 노동관’이라고 생각한다. 선진 기술과 선진 기계에 이 새로운 노동관, 새로운 노동 철학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국제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순전히 경영적인 면에서 고찰해도 고숙련(高熟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상품의 생산이나, 고가(高價)이고 파손되기 쉬운 기계를 사용하는 상품 생산, 또는 고도로 예리한 주의력과 창의(創意)를 필요로 하는 상품 생산에서 저임금(低賃金)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 고도의 책임감이 절대로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적어도 노동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편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노동으로 종전과 같은 임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버리고, … 흡사 노동이 절대적인 자기 목적인 것처럼, 직업이 그대로 소명(召命:Beruf)인 것처럼 생각하는 정신이 일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은 인간에게 생득적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고임금이나 저임금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오랜 세월에 걸친 교육 과정의 산물이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지금까지의 저임금의 경제에서 앞으로는 고생산성의 경제로 넘어가야 할 우리 나라의 경우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구절이다. 고생산성 경제는 새로운 기계와 새로운 숙련뿐 아니라 새로운 노동 철학과 새로운 직업 정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오랜 기간의 사회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백번 천번 옳은 이야기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노동 존중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 자기 목적으로서의 노동관과 사명으로서의 직업관을 이 땅

에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서의 노력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성원 모두에게 어릴 때부터 ‘사회적 분업’의 올바른 의미를 교육시켜야 한다. 가정 교육에서도 노력해야 함은 물론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 이를 가르쳐야 한다. 정규 교과과정의 하나로서 ‘사회분업론’·‘직업관’·‘노동 철학’ 등을 가르쳐야 한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본래 올바른 노동 철학과 올바른 직업관의 정립은 사회적 분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 존중의 노동 철학, 사회적 사명으로서의 직업 정신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의 의미를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나만의 개인적 일로 끝나지는 않으며 사회적 분업 질서를 통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와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야 한다. 우리의 직업 노동·분업 노동이 사회 전체와 연결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그대로 우리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우리 사회의 진보와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사회라는 거대한 구축물은 수많은 분업 노동의 거미줄같은 상호 의존 관계·상의 상생(相依相生) 관계 속에서 형성·유지·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업 노동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도 중요하다. 노동과 직업에는 결코 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 생존 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타인들의 분업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웃들의 분업 노동 없이는 내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삶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따라서 서로의 분업 노동 내지 직업 노동이 서로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자각도 높여야 한다.

이상에서처럼 사회적 분업의 참된 의미를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로 이해할 때 노동 존중의 노동관, 사명으로서의 직업관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교육자들의 사명이 특히 중요하다.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교육자들이 앞장서 올바른 노동 철학을 세우고 올바른 직업관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참여(參與)와 공유(共有)의 기업 문화·직장 문화를 세워야 한다. 기업이란 어떤 존재인가, 직장이란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올바른 이해를 세워야 한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기업,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서의 직장이어서는 곤란하다. 노사(勞使)가 함께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장(場)으로서의 직장, 소비자의 후생 증대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생산·경영 공동체’로서의 기업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공동체지향적이고 노사일체적(勞使一體的)인 직장관과 기업 문화가 우리 사회에는 크게 부족해 왔다. 적지 않은 기업인들이 기업을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경영해 왔으며, 적지 않은 노동자들도 직장을 단순한 생계 수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근무해 왔다.

이상과 같은 공동체지향적이고 노사일체적인 기업관·직장관의 부족이 우리 사회에 노동 소외와 노동의 무의미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노동 기피 내지 노동 경시의 풍조를 일반화시키는 데 일조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성격과 직장의 의미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노사 합작의 기업상(企業像), 공존 공영의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경영자들이 노동자들과 경영 정보를 허심탄회하게 함께 공유하는 일이다.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의 임무가 기업 전체의 존립과 발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지 않고는 노동자의 진정한 참여 의식과 소속 의식 및 노동 열의는 나올 수 없다.

이미 앞에서도 보았듯이 노동의 소외나 무의미화는 분업 노동 그 자체에서 오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분업 질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분업 질서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경제·경영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수시로 공개하여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려야 하고, 배치 전환이나 교육 훈련의 강화를 통하여 기업 내부의 분업 구조는 물론 나아가 당해 기업과 사회 전체와의 분업 구조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목적·존재의

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치 부여, 새로운 신화 부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도 자신이 속한 기업이란 하나의 분업 질서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그리고 그 속에서의 자신의 직업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력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의 폭도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 결국 공유뿐 아니라 참여 없이는 노동 소외의 완전한 극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 공유는 실은 경영 참여를 위한 초보적 사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정보 공유가 경영 참가로 발전할 수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선(善) 순환이 가능하게 된다. 즉 '정보 공유의 강화→공동 가치와 공동 목표의 확인→경영 참여의 확대→공동 노력의 강화→생산·경영 공동체로서의 기업 문화→봉공(奉公)으로서의 직업관과 목적으로서의 노동관의 등장→기업 성장과 개인 발전의 동시 달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참여적이고 공유적인 기업 문화와 직장 문화를 세우기 위해 가장 앞장서 자기희생적 자세를 보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지도적 기업인들이다. 이들이 앞장서 참여와 공유의 기업 문화와 직장 문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목적으로서의 노동'·'의미로서의 노동'이 우리 사회에도 가능하게 되리라고 본다.

셋째, 우리 사회 일각에 나타나는 노동 소외 내지 '노동의 무의미화' 현상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및 별단의 분발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노동 소외 현상을 극복하여 노동 경시의 사회 풍조를 노동 존중의 사회 풍조로 바꾸는데 우리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 내지 직업과 종교적 삶의 목표와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 일반 종교인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심각히 제기한 것 같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다.

예컨대 기독교적 삶의 궁극 목표가 구원에 있다면, 그 '구원과 노동' 내지는 '구원과 직업'과의 관계가 보다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기독인들에게는 삶의 목표와 직업 노동과의 관계가 명백해진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궁극 목표가 깨달음에 있다면, 이 '깨달음과 노동' 내지는 '깨달음과

직업'과의 관계도 명쾌히 정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삶의 목표와 직업 노동과의 관계가 명백해진다. 그리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도 '목표로서의 노동'·'의미로서의 노동'이 등장할 가능성과 여지가 생긴다.

앞에서 보았듯이 유럽의 기독교는 이 일을 잘해 냈고, 일본의 불교도 이 일을 잘해 낸 것 같다. 그리하여 유럽과 일본에서는 '구원의 확인을 위한 직업 노동'·'깨달음을 이루어가는 직업 노동'이라는 노동의 의미화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기독교와 불교는 이 점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일본에는 시민적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투기·과소비·직업 윤리 문란 등 천민적 자본주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주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유럽과 일본의 자본주의 정신에는 금욕적 내지는 자기억제적 요소가 강하고 공동체지향적 경향이 강한 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 그러한 점들이 크게 부족하게 된 이유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노동의 의미화'라는 이 시대적 과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각별한 분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참고 문헌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양희수 역) 『사회과학논총』, 을유문화사, 1983
- 島田燁子, 「日本人의 職業倫理」, 일본, 有斐閣, 1990.